

노동의식의 역사적 변천과정

남중헌
경영학과

<요 약>

노동의식이란 노동을 하는자와 노동을 시키는 자 사이의 의식이다.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가 달라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임금노동노동관은 결코 절대적 보편적인 노동관이 아니라 역사적 돌연변이와 같은 형태이며 또한 적용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관에 대한 다양한 상대적인 인식은 노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존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의 노사관계의 유형이나 잇슈,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임금노동노동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생각의 범위를 보다 넓혀 좁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섭렵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노동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각각 그 시대적 배경과 노동의식의 특징을 고찰하여 보았다.

Historical Changing Stages of the Labour Consciousness

Joong heon Nam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bstract>

Labour Consciousness is the very consciousness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who are labouring and who make them to work. The Understandings of working motivation and the labour strategies and systems will be dependent on how to perceive such labour properties. We can say that the Wage Labour Perspective very accustomed to

us is never absolutely universal labour perspective but only adhoc mutation-like event the applying scope of which is very restrictive. The very relative and diverse cognition about labour perspective will allow us much more flexible thinking methods rather than already established fixed ones. And it will make us be able to get various ideas in considering labour patterns, issues and its solutions through widening our thinking limits beyond remaining on the one labour perspective of Wage Labour. Based on this meaning, this paper has been researched to classify the all historical changing stages of labour consciousness into seven ones and to describe the periodical backgrounds and the labour consciousness particularities about each of them.

1. 서론(노동의식의 변동성과 다양성)

노동의식이란 노동을 하는자와 노동을 시키는 자 사이의 의식이다.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동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가 달라진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때 노동에 관한 인식이 늘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같이 임금노동의 형태로 이어온 것은 아니다. 자유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의 가치창조분의 댓가를 보상으로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불과 근래의 2~3세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봉건신분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의 신질서의 경험으로 나타난 한 노동생산 방식이라고 보겠다. 더구나 지난날 세계의 악 반에 해당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시장메카니즘을 거부하여 왔으며 이와같은 맥락에서 노동을 돈(임금)으로 사고 파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본주의 우리 사회에서도 더 들여다 보면 주부가 제공하는 노동의 경우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수고들은 모두 그 댓가가 곧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종교기관이나 사회사업기관,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농촌사회에서 서로 호혜적인 상부상조의 관계를 맺는 품앗이 관계들도 역시 금전수수와는 관계없는 품의 교환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임금노동 노동관은 결코 보편적인 유일한 노동관이 아니라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역사적 공간적으로 특수한 한 상대적인 형태에 불과함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노동의식에 어떠한 절대성도 여기에 부여할 바가 못되는 것이다. 노동관에 대한 이러한 상대적 인식은 노동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존의 경직된 사고방식들을 벗어나서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의 노사관계의 유형이나 잇슈,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임금노동 노동관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생각의 범위를 보다 넓혀 줌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섭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먼저 거시적으로 노동의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반드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의식의 변천과정을 그 시대와 특징에 따라 크게 여섯가지의 종류 및 단계로 구분하여 보았다. ① 원시사회의 비통계적 노동관, ② 고대사회의 노동부정적 노동관

(노예노동), ③ 중세봉건시대의 조직인적인 노동관(부역노동), ④ 초기자본주의시대의 프로테스탄티즘 노동관, ⑤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노동관, ⑥ 사회주의 사회의 공동체적 노동관, 그리고 끝으로 ⑦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관으로 열거해 볼 수 있다. 각 노동관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임금노동 노동관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노동관의 틀을 벗어나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적극적으로 노동문제를 해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개방화 및 국제화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기업들도 국경에 의한 보호나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지 못하고 적나라한 경쟁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 및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노동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또한 조직혁신 및 업무혁신 등의 격변기에서 노사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노사문제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듯이 은폐하거나 억압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노출하여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노사협조체제를 더욱 견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심각한 내부모순과 일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노사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국내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나 주장을 억제하고 소외 제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현 자본주의 체제에 깊이 동참시키고 또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혁신 및 조직혁신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노사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그리고 노사문제해결은 경제민주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동교육의 활성화는 경영혁신 및 건전한 기업풍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해결방안 및 대안의 발견을 위하여 노동의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고찰의 의의가 있다.

2. 원시사회의 비통제적 노동관

원시사회는 인간들의 삶의 원형이라고 하겠다. 복잡한 현대의 삶속에서 흔히 피상적인 현상에 가리워져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원시사회를 단순히 유적만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객관적 증거만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공정한 역사적 재구성이 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시대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한 연구가 가장 필요한 때가 된다.

이 때의 논의는 수렵채취사회 또는 구석기 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대는 인간들이 자연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고 이를 숭배하거나 대항하면서 생존에 급급한 시대였다고 할 것이다. 즉 인간과 인간사이의 갈등관계보다도 자연과 인간사이의 갈등관계가 심각하던 때인 것이다. 이때 인간들은 너무나 외로웠고 주위에 수많은 예를 지어 다니는 짐승들의 큰 무리들을 자연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도 무리를 이루어 더 강해야만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인간종족의 생존과 번식이 최대의 과제였다고 하겠다.¹⁾ 종족번식을 위한 성기숭배

1) 엘리야스 카네티 (Elias Canetti) 지음/潘星完 譯, 「君衆과 權力」, 한길사, 1982

사상도 이와 관련되며 이를 위한 먹이의 확보가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제사는 먹을 것을 얻는 주술행위였으며 죽은 조상도 산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의식도 강력한 무리증식 욕구와 관련된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에는 생산성이 매우 낮아 종족의 번식은 먹이량의 수준에 의하여 세약을 받게 되며 먹이의 배분과정은 이 시대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사냥감이나 채취물은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먹었으며 부족할 경우는 그 위계순서가 있었다. 젊은 임신부가 제일 영양가 있고 맛있는 부분을 먹으며 그 다음은 생산자, 아이들, 그리고 종족의 번식과 무관한 노인들이 그 다음의 순서였다.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때때로 산자를 장사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북극지방의 경우는 노인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며 짐승들의 먹이가 됨으로서 다시 자손들의 생존을 돕는 풍습도 있게 된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의 동질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서로는 서로를 진정한 의미에서 아끼면서 살았다. 남녀관계는 대개 동굴속에서 혼음(混淫)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소위 다부다처제 또는 다부일처제의 모계사회를 이루며 살았다.²⁾ 종족을 번식하는 능력을 가진 여성의 위치가 매우 높았고 사식은누구가 어느 남자의 씨인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그러한 자각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라는 하나의 집단의식이 지배적이며 바로 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숫적으로 얼마나 키지느냐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이 시대는 공동체의 증식을 위한 자기헌신적인 규범의식이 발달하였으며 자기자신과 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이 때의 노동의식은 자기자신과 동일시 되는 자기집단을 위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노동통제의 개념이나 착취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자기자신을 위한 비통제적 노동양식이었다. 이 시대는 노동을 사용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의 상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사회이다.

3. 고대사회의 노동부정적 노동관(노예노동)

고대사회는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생활을 하는 신석기 시대에 성립된다. 이 시대의 근본 특징은 원시사회보다 훨씬더 생산성이 증가되었고 소비하고 남은 잉여물이 크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곡물을 재배 경작하고 동물들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자연수탈적인 구석기 시대보다 분명히 생산방법이 개선된 것이다. 저장능력의 발달과 생산수단 및 도구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로 말미암아, 이를테면 한나절의 노동을 반나절의 노동으로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활이 배로 더 편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잉여물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며 국가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회는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의식은 파괴되고 약자는 강자에게 종속되며 노동통제와 착취를 당하게 된다.

부자와 권력자는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기들 끼리만 이를 누리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나 소유제를 강화하고 혈통에 의한 가족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앵겔스와 같은 맑시스트들은 사유재산제와 가족제도는 상호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가족제도는 우리

2) 레나 탄나힐 지음/김광만 역, 「性の 역사」, 김영사, 1982

와 남을 구분하는 의식과 친소(親疎)관계를 따지는 의식이 그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³⁾

이 시대의 가족제도는 일부다처제의 형식이 대표적이다. 체력이 우월한 남성이 생상성에 비교우위적이 되고 여성의 종족번식 기능은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된다. 힘센 남성은 최초의 잉여물 축적의 핵이 되고 그 능력에 따라 여러 여성을 거느리고 대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득권은 상속을 통하여 타인과 구분하여 누릴 수 있는 방도를 가족제도에서 찾는 것이다.

마침 신석기 시대는 가족을 기르기 때문에 동물들의 교배과정에서 수컷이 암컷에 영향을 미쳐 자식을 낳는 원인을 깨닫게 된다. 검은말에서 검은말이나고 흰말에서 흰말이 나는 것이다. 자식은 신의 점지가 아니며 또한 성교과정은 영양공급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계기를 만들며 전장에 나가는 장군들이 부인의 육체에 정조대를 채운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남성은 자기의 여자가 순수하게 자기 핏줄의 아기를 낳아주기를 요구하고 자기외의 주위의 불순한 다른 남성이 접근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게 된다. 그 사회의 구조를 보면 먹이생산은 남성이 담당하고 임신양육은 여성이 담당하는 분화과정을 밝음과 동시에 이 양 역할분담은 상호의존적인 교환관계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산업사회를 경험할 때 까지 계속되고 점차 여성들의 도덕적 제약이 강화됨과 동시에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간다.

보다 나은 기술과 도구의 사용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 오지만, 다른 한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킴으로써 계급적 사회로 나아가게 함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이나 도구는 근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한다. 지능의 향상, 근육, 체력, 손기술의 발전 등 내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막대기, 창칼, 기계, 공장, 군대 등의 외적인 수단도 역시 생산성 발전 및 잉여물 축적보존과 관련된 산물들이다.

가족도, 정치조직도, 군대, 무기, 종교, 교육, 조직까지도 권력과 부(富)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도구적 성격을 고대사회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고대사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 갈래로 깨뜨려지면서 동지와 적의 개념이 생기고 지배와 착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 사이의 참혹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의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곡식이나 가족을 약탈하는 약탈 전쟁이었으나 후기의 전쟁에서는 포로를 잡아들이고 이들을 노예로 삼는 노예전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노예는 인류의 최초의 대규모 피지배 노동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는 노동을 시키는 자와 노동을 하는 자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나타나며 후자는 전자로부터 사생활 전체와 생사여탈권이 귀속당하는 최악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예전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장군들은 대토지소유제(Latifundium)의 주인이 되어 노예들을 생산에 종사케 하고 국가 경제의 토대로 삼게 되었다. 전쟁의 가장 용맹한 승자는 국왕이 되고 이 때의 국가는 지배를 위한 도구의 성격을 지니는 당연하다. 노예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는 더욱 부강해지고 대국가의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테면 로마제국이에 해당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이 시대의 지성인들도 노예제도를 당연시 여기는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가족에

3) 엘리 자레스키(Elī Zaretsky)지음/김정희 옮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한마당, 1983.

불과하다고 보았다.⁴⁾ 플라톤은 국가경제의 토대로서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보았다. 이 시대의 구조는 지성인들 까지도 노예제도의 죄악상의 공범자가 되게 한 것이다.

기원전 73년에 스파르타쿠스반란이라고 불리우는 무려 수만명이나 되는 대노예반란이 있었다. 이 반란은 실패로 끝났으며 많은 주모자들이 십자형 틀에 못박히는 처형이 있었다. 노예들의 인권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참하였다. 전쟁에 의하여 노예의 수가 넘칠 때나 노예들의 가격이 싼 반면에 양어장의 고기값이 비쌀 때는 노예들이 고기밥이 되기도 했다고도 한다.

노예노동에 관한 인식은 고대사상의 두 주류인 헬레니즘(Helenism)과 헤브라이즘(Hebraism)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사상으로서는 노동은 인간의 벌이요 고통이라고 보았으며 이상적(理想的)왕국에서는 노동이 없다고 상정하였다. 이는 노동에 대한 가장 미발달의 개념이며 노동을 가급적 나쁘게 생각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의식을 나타내 준다. 귀인(貴人)은 노동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의 유교사회의 양반사상과 매우 흡사하다.

다음 헤브라이즘은 유교의 사상으로서는 구약성서에 잘 나타나 있다. 구약에서 노동은 인간의 원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고생하게 된다는 비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에서 가난하고 노동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고 특권계급이 정당시되는 사상적 배경을 깔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윤회사상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아무튼 고대사회의 노동부정적 노동관에서는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죄, 벌, 패전 때문이라고 보며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4. 중세봉건사회의 조직인적 노동관(부역노동)

고대사회의 노예해방은 고대사회의 내부에 자생적으로 잉태하여 심화되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세봉건사회의 특징은 노예들을 세(稅)를 내는 소작인으로 해방시킨 것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따지면 토지와 노예를 결합시킨 소작인 제도로써 언제든지 토지와 함께 양도될 수 있는 농노(農奴)라고 불리워 진다. 다만 고대사회의 노예 보다는 노동통제가 조금 완화된 자급자족적 경제체제이지만 영주에게 역시 사생활과 생사여탈권이 귀속되어 있는 신분사회인 것이다.

로마시대의 말기적 양상은 시민들의 호화로운 사치생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식민지 각지역으로 부터 징수한 잉여물이 로마에 많이 쌓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국내의 생산물의 수요의 형태를 점차 변화시키게 되고 수공업의 발달, 그리고 노동의 숙련, 복잡성, 고급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는 노예들에 의한 기존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고 노예들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노예들을 포로로 충당하기 위한 원격지 징벌은 점차 거리가 멀어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게 들었고 따라서 노예를 두고 부리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다. 더구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노예전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결국 라틴풍디움은 수지가 맞지 않아 붕괴한 것이다. 더구나 귀족들의 사치성은 노예들의 생필품 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희망하게 되었고 세금을 낼 수

4) 마테 프랑소아 지음/광민사 역, 「노동의 역사」, 광민사, 1979.

없는 노예들을 소작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노예에 대한 직접노동통제 방식에서 농노의 세(稅)에 의한 간접노동통제 방식으로 옮겨간 셈이다.

중세사회는 로마제국을 대신한 기독교제국의 지배이며 교회와 봉건영주들이 지배하던 사회인 것이다. 농노들은 생산을 담당하였지만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그리고 영주는 국방을 담당하며 역할을 분담하였던 것이다. 중세사람들은 소위 유기체설(Organism)에 입각하여 사회를 바라 본 셈이다. 즉 각자는 사회의 지체(肢體)로서 마치 사람의 몸의 각 부분처럼 인식하고 신분, 직분, 구실, 역할을 중시하는 종교관, 조직관이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 사회전체의 질서에 기여하고 이것이 신의 뜻과 신의 질서(교회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세습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는 그 당시 지배적이던 기독교적 상징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규정되고 위계질서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중세시대의 노동관은 이러한 역할인식 속에서 노동의 동기와 원인을 찾는 형식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조직인식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은 사회의 한 지체로서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였으며 이는 고대시대의 부정적인 노동의식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노동관인 것이다. 중세 농노들의 노동은 소작인으로서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노동을 하거나 대토지소유자인 봉건영주를 위하여 노동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영주의 장원(莊園) 등에서 부역노동을 하거나 조세(租稅)를 낸다.

당초의 노동지대인 부역세는 그 비중이 점차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생산성 증대와 잉여물 증대를 위한 자연스런 진행 과정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생산물지대로 바뀔에 따라 이를 내기 위하여 중간상인이 등장하고 수납하는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수공업이 발달하고 또한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중간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더욱 자신들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영주의 관할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좀더 초월적인 권력에 의한 영지 사이를 통합시키는 국가적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영주들로 부터 회수한 권력 때문에 국왕의 권력이 절대권력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봉건영주를 회생으로 국왕과 농민 그리고 도시상인의 결합과 결탁하는 경향은 시민혁명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심화된다. 뿐만아니라 당시의 종교개혁은 국왕이 교회재산의 박탈을 할 수 있는 명분과 권한을 얻게 된다.

영지민들은 봉건영주의 세금과중에 반발하여 이들은 몰락시키거나 길로틴으로 처형시키는가 하면 영주로부터 해방 또는 자치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봉건적 유대관계와 점점 결별하게 됨에 따라 사유의 신장과 더불어 상공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 그 중심지역에는 도시가 발생하며 화폐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당시의 기술 및 자연과학의 발달은 갑작스러운 생산성 증대를 가져왔고 상공인들의 잉여물의 축적수준이 높아 이들은 부(富)와 권력을 크게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에 위기를 모면한 현명한 영주들은 자신의 재산을 상공업 쪽으로 투자하여 자신의 신분을 세(稅)에 의존하지 않는 신분으로 재빠르게 변신하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의 토지를 제조업 분야의 원자재 공급을 위한 상업물품을 재배하는 영업적 생산지로 바꾸었다. 영국의 경우 그때 모직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주로 양을 기르는 목축지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영주의 몰락, 자치도시의 발달, 토지의 이러한 새로운 이용 경향은 토지와 농노 사이의 유대를 결별하게 하고 중세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하였다. 토지로 부터 쫓겨난 농노들은 자유임금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몰려들어 산업예비군이 되었고 경쟁

적으로 값싼 노동을 기업조직에 팔아서 생존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정치적 신분으로는 자유로웠으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경제적 자유는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중세시대의 농노는 토지와 결함관계를 벗어나 기업체에 조직되었고 신분에 의하여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돈) 때문에 노동하며 영주에 의하여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노동통제를 당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5. 프로테스탄티즘 노동관(초기자본주의 노동관)

자본주의는 영리추구와 자유계약의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교회, 영주, 토지 및 신분의 결속에서 해방된 자유임금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오로지 자신들의 노동을 파는 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가들은 자유로운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액에 대비하여 보다 더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을 최대한로 추출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념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를 찾게 되었다. 절대적 권력의 주종관계가 아닌 상대적 권력의 관리관계에서 노동의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가기도 한 것이다

당시에 종교개혁에 의한 프로테스탄티즘 신앙은 무한한 영리추구와 노동동기의 원인을 촉진시키며 성공적인 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노동자의 노동관으로 의식되게 되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노동관은 노동에 대하여 미화(美化)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고대시대에 노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과도 다르며 중세시대처럼 노동을 당연히 여기는 입장과도 다르다.

베버(M. Weber)는 그의 유명한 저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서에서 초기자본주의 정당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⁵⁾ 자본과 잉여물의 축적의 과정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신앙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마르크스의 착취이론과는 상반된 입장에서의 설명체계라고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의 덕목은 근면, 절약, 청렴, 정직, 신용등이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이러한 제반의 도덕성은 이(利)를 낳고 이 이익은 자본가로 하여금 더욱 발전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큰 일과 사명을 부여받은 이 축복의 상황은 구원의 확신을 갖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당시의 자본가들은 자본축적을 자신의 도덕실천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떳떳할 수 있었고 또한 주의 사람들로 부터도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초기자본주의는 대체로 재능과 능력의 초기적 경쟁이기 때문에 그 이후 독점자본주의 거대한 자본력의 경쟁의 시대와는 달리 자본축적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용이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자본주의 시대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구분식 인식이 적고 성공한 노동자가 자본가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양 계급의 사회적 상하 이동과 변환적 사고가 어렵지 않은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세속적인 현실의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직접 초월적인 추상적 신

5) 막스 베버(Max Weber)지음/梁會水 譯,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4), 을유문화사, 1981

(神)을 절대적인 구심점이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철저하게 합리화(rationalization) 수단화 한 것이다. 인간은 신의 부름을 받아 도구로 쓰이는 존재이며 천직사상이나 소명의식이 노동을 하는 원인이요 노동을 하는 의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은 신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오직 신의 영광을 위하여 합목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직업생활에 충실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고 이는 바로 종교적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직무에 충실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인간과 사회에 유익함을 주게 되고 이는 원래 계획되로 예정되어 있는 신의 질서구현의 뜻 또는 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댓가로 직업에 충실하고 또한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게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 성취감과 결합이 된 초기자본주의는 지극히 금욕주의적이었으나 무한한 노동의지와 영리추구 욕구를 유발시킨 것이다.

인간은 원래 종교적 구원의 성취를 나타내 주는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강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행, 수도, 암송, 자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종교적 달성 수준을 시험하거나 과시하고 또는 주위로 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프로테스탄트들은 사업성공과 자본축적을 통하여 이를 확인했던 것일 뿐이다

슐루터(W. Schlucht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실천적 변혁적 윤리로서의 힘을 높이 평가하여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⁶⁾

윤리의 발신 수준을 마술적 윤리, 법적 윤리, 신념의 윤리, 그리고 책임의 윤리의 네 단계로 나누고 기독교는 마지막 윤리의 단계인 책임의 윤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초월적 해방적 유일신의 성격을 지니는 종교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은 율법적 규범적 속성을 벗어나 원리적 성찰적 특성을 지니며 신념수준을 넘어서서 신의 역사 창조와 섭리에 동참하는 가치실현의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6. 임금노동 노동관(자본주의 노동관)

자유임금노동자에 의하여 임금을 받는 댓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러한 노동관이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노동형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근원이라는 노동가치설과 관련된다. 그러나 노동이 가치창조를 담당하는 몫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이념 및 경제체제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노동가치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이 양 체제의 속성을 거의 피상적으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 할 것이다. 원래 노동가치설은 고대로부터 학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있어 왔고 존 로크도 주장한 바가 있고, 아담스미드, 리카아도와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잘 정리 되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공산주의에 관한 이론을 내놓은 것이다.

고대의 파나이토스(Panaitos)는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사물은 인간의 노동에 의한 것이

6) Wolfgang Schluchter, The Rise of Western Rationalism, University of Capitalism, 1981

라고 하였고, 시체로(Cicero)는 자연은 인간의 생활을 재생산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에 의하여 변형이 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일련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계몽사상가 로크(Locke)는 인간생활의 유용한 산물 가운데 10의 9는 노동의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노동가치설의 이론체계는 아담스미스와 리카아도의 이론에 의하여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담스미드는 한 나라의 국민이 한 해동안 투입하는 노동은 국민들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품과 편의품 일체를 그들에게 원천적으로 공급해 주는 근원이다 라고 하였다. 즉 노동이 국부의 원천과 문명의 진보를 가져옴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리카아도는 상품의 가치가 노동의 투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이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것이며 노동은 인간의 삶을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노동의 역사이며 노동의 발전이 생산양식 변동의 역사과정을 대폭 규정해 왔다는 입장이다.

가치창조가 노동투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모두 적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생산요소와 더불어서 노동도 가치창조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본, 기계, 건물, 토지, 자연, 자원, 정보, 기술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도 가치창조를 하며 각 생산요소들의 기여도는 그것들이 시장에서 경쟁하여 팔리는 가격수준으로 판명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잉여물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각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의 제 세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노동관은 노동을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대상으로 파악된다. 즉 노동을 교환가치로서 인식하는 것이며 노동의 원인은 돈 (임금)을 벌기 위하여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오직 현실의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현재의 노동만이 가치 창조를 하며 가공된 자연물이나 기타 과거의 노동자에 의하여 투하된 죽은 노동인 자본, 기계 등 생산요소들은 그 가치가 상품에 단순히 이전될 뿐 새롭게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생산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귀속될 잉여물을 시장메카니즘이 왜곡시켜 이를 생산요소 소유자들에게 소유케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를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잉여물을 국가가 수거하고 분배관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의 통제권력에 노동자들이 재종속되는 문제와 그 국가권력이 소수인에 의한 사권력화 (私權力化)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과제가 제기된다.

자본축적에 있어서 베버와 마르크스의 견해는 상호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적 윤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영리추구의 동기가 발생하였고 자본가의 자본축적 및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잉여물을 착취하는 동기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초과노동, 기술의 발달, 생산성 향상은 그 축적을 가속화 시킨다고 보았다. 이것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석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베버와 마르크스는 상호 대비할만 하다. 베버는 문화와 이념과 같은 상부구조가 사회의 하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본 반면 마르크스는 생산양식의 변동과 같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실체와 모순들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사상체계에 의하여서는 정당화되거나 은폐될 뿐 잘 드러나지 않음은 당연하다. 부득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상

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그 각 실체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흔히 사회주의 사상이 유물론적이라고 하여 정신보다 빵만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만능의 사회구조 및 물화(物化)된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이론적 무기로서 유물론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며 오히려 그 사회는 정치사상에 의하여 대중들을 동원하여 부단히 정치적 에너지로 재생산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는 비유물적 사회체질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입장, 즉 마르크스가 분석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잉여물 축적과정과 모순의 발생과정에 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나타낼 수 있다.⁷⁾

자유임금노동자와 자유계약의 방식은 우선 초과노동의 잉여물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생산수준이 1인의 노동자가 1시간에 1파운드씩 방적물을 생산하고 이 방적물 1파운드 당 2실링에 팔릴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1파운드의 방적물에 소요되는 방적면의 양이 1파운드이며 생산된 1파운드의 방적물은 1실링의 값이 된다고 하자. 이 때 1인의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을 일한다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세울 수 있다.

$$\text{방적면원료 12실링} + \text{노동의 재생산부분 6실링} + \text{초과노동분 6실링} = \text{방적물 판매대금 24실링}$$

여기에서 수입의 24실링중 자본이나 원료는 새로이 가치증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새로운 상품에 이전된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잉여물의 착취수준은 자연노동의 계량화가 가능해지는 인위노동으로 바꾸는 시계의 발명과 화폐의 발명으로 더욱 촉진되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계약 때문에 자본축적의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 위의 공식에서 잉여물은 시장메카니즘의 왜곡으로 여러 다른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고 간주하고 착취율을 초과노동분의 잉여물/임금액=6/6=100%로 계산하는 것이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착취하게 되면 위의 공식이 달라진다. 즉

$$\text{방적면원료 12실링} + \text{노동의 재생산부분 4실링} + \text{초과노동분 8실링} = \text{방적물 판매대금 24실링}$$

최저생계비 수준이 6실링인데 노동의 재생산부분이 4실링으로 준다는 것은 내일의 노동생산량이 오늘보다 점차 작아진다는 것으로서 개인이든 세대간이든 점차 쇠하고 생명이 단축되며 죽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초과노동분은 잉여물로서 이 때 착취율은 8/4로서 = 200%가 된다. 그리고 초기자본주의 시대의 영국의 경우 여성, 연소자, 노인 등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오고 생산기술의 변동으로 이들이 대거 생산에 참여함으로서 당시의 인력의 수급상황으로 볼 때 생계비 이하의 노동자가 부단히 공급 대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부를 축적하기 위한 이해관계 때문에 잉여물을 많이 생산하는 방향의 초과근무 또는 생계비이하의 착취를 은연중에 옹호하게 되었고 자연히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본가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착취율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즉, 기술적 사회적 여건변화로 1시간에 2파운드를 생산하게 되면,

7)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edited by Engels), International Publishing Co., 1967, pp 156-368

방적면원료 24실링 + 최저생계비 6실링 + 초과노동분 18실링 = 방적면 판매대금 48실링

로 나타난다. 이 등식에서 착취율은 $18/6=300\%$ 가 되고 만약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착취를 하게 되면, 위 등식이 다시,

24실링 + 4실링 + 20실링 = 48실링

으로 표시되어 착취율은 $20/4 = 500\%$ 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착취율의 증가는 초과노동의 증가, 생계비이하의 임금수준, 기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촉진되며 자본은 원래 그 스스로 증식되려는 속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1 : 1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품 대 상품의 관계, 또는 자본 대 자본의 물화된 인간관계로 변질된다. 인간은 자본의 대리인이 되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유불평등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로 수직적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의 잉여물착취분석은 몇가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가치의 생산적 측면의 일면만을 분석한 점이다. 아무리 노동이 많이 투하되어도 수요자의 효용이 없으면 가치를 지닐 수 없는 수요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본재나 자연의 생산기여 측면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이외의 다른 생산요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무시된 점이다.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설사 생산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생산활동에 호조조건을 만들어 주는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잉여물의 생산을 과잉계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경영의 생산기여를 간과하고 있는 점도 착취율을 크게 하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잉여물의 불평등 배분으로 사회의 권력을 단일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렌도르프 (Darendorf)가 지적하였으며 기든스(Giddens)도 물질 축적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는 정보의 축적이 사회의 더 크고 근원적인 권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최고의 조직화된 정보덩어리로 보았다. 다섯째, 잉여물을 국가권력이 관리할 때 국가권력이 사권력화(私權力化)되며 당(黨)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표성이 단절되는 우려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맑스의 자본축적에 대한 비판분석은 식민지개척과 세계전쟁을 설명하는 세국주의론으로 발전된다. 국내에서 자본담합과 잉여물의 축적에 의한 독점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극심한 소외, 국내 구매력 감퇴와 국가의 정당성 상실 등으로 공황과 혁명의 불안이 감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여 그 돌파구를 찾게 된다

1,2차 세계전쟁은 이러한 식민지 쟁탈전쟁으로서 이러한 자본의 해외진출로 선진자본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고 볼 것이다. 독일이 국내통일을 비교적 늦게 하여 후발로 식민지 분할에 참가하려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자본국의 도시의 노동자가 혁명을 우선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한 이 세국주의론은 스탈린이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포기하고 러시아 일국의 혁명을 보호하려고 식국 전쟁을 벌인 일국사회주의론, 모택동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농민과 손잡고 실천한 혁명 전략전술, 그리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국가간 계급구분을 함으로서 오히려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의 빈번한 혁명을 설명한 종속이론 등은 제국주의론이 잘못되었음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채무국동맹들과 일부 경제블럭화는 종속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약소국의 몸부림으로서 해석할만 하다

7. 사회주의 노동관

사회주의 노동관도 자본주의 노동관과 마찬가지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고 있다.⁸⁾ 자본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관점을 부인하고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잉여물은 왜곡된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절대 귀속될 수 없다고 보는 적극적인 노동가치설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잉여물은 프로렐타리아 계급을 대표하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는 공유제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적소유에 의한 차별화를 공적 소유로서 극복하고 평등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부의 불평등구조를 소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권력적 불평등구조를 완화하고 사회복지적 수정자본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로써 신진자본국은 사회주의의 비판에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강화해 온 셈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잉여물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의 속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국가권력이 사권력인가 아니면 공권력인가가 문제 된다. 이것은 국가의 관리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표되고 통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프로렐타리아 독재는 노동자와 당간부 사이의 괴리를 발생케 하여 새로운 계급분화를 낳고 있다. 당비판금지, 당명절대복종, 사생활철저감시 등의 강경한 억압으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그 정도에 따라 엄밀히 표현하면 사회주의와 대비하여 공산주의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과 권력이 철저하게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관직)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권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 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전쟁하거나 투쟁하는 과정에서만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과정적 산물의 저항조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국가권력의 재생산과정은 명령일원화의 전투조직인 프로렐타리아 독재의 공산주의 조직으로 나아가기가 십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자본주의 국가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공존, 화해, 평화협정의 상태로 나아가면 공산주의 체제는 본래의 순수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의회적 사회주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치적 위계질서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든가 생산성 향상 및 기술도입을 위한 개방은 역시 이 사회의 보수적인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동지애라는 사랑 때문에 노동을 한다. 즉 자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식과 이념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유토피아의 이념에 의하여 자기헌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은 국제적으로 부르조아 사회를 타도하고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적, 전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국가 권력은 평등보장을 위한 명분으로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한다. 이타적인 동지애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이 아닌 타율적 이타주의는 또다른 형태의 심각한 국가 착취제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주 공산주의는 전략전술상 오류를 낳는다. 본래의 인본주의 정신(목적)이 반인본주의 전략(수단)에 의하여 압도되는 경우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단결에 의한 조직적 권력에 의존하여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

8) 로날드. I. 미크 지음/김제민 옮김, 「노동가치론의 역사」, 풀빛, 1985

동구조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숫적인 우세에 의하여 단결만 하면 노동은 자본에 대하여 항상 승리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에 사회주의 체제가 대부분 붕괴하거나 자본주의 정책을 대폭 도입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의 국가 자체는 근본적으로 고도의 첨단기술의 발달에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 고도의 첨단기술은 불가피하게 개방적 국제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폐쇄적인 저항조적으로는 기술의 상호 비교, 상호 교류, 비교우위의 선택과정 등이 크게 제약을 받거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주의 체제가 후기산업사회의 세계체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체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층부 구성이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진 숙련노동자집단이 아니라 투쟁정신 의식화된 미숙련노동자집단이었고 이들은 또한 지식인들을 배척하는 사회이념 및 지배이념을 신봉하였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후기산업사회를 대처하는 국가관리능력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동자들의 동기유발이 크게 억제되어 생산성의 저하가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인과관계마저 파괴되어 버렸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공유제도에 의하여 사회구성원의 사람수(n) 만큼 나누어진 몫(1/n) 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일하려는 동기유발이 저하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빈곤의 평준화의 길로 가게되는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8. 후기산업사회의 노동관

2차세계대전이후 군비경쟁에 의한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은 사회를 매우 급변시키고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누적된 모순은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이 소용돌이치며 변화하게 하고 있다. 토플러 (Toffler)와 같은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충석의 시대를 제 3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으며 소위 고도정보기술시대라고 규정하였다.⁹⁾ 그리고 동시에 이때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직과 질서를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노동과 관련하여 이 후기산업사회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노동가치설이 점차 무너진다는 것이다. 기술집약적인 생산체제가 되고 또한 새로운 시설투자, 각종의 자동화 과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자본장비율이 매우 높아져 노동의 투하량과 생산성과의 관계가 매우 회박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고도의 정보와 기술에 의하여 생산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에 노동과 가치생산과의 상호 관계가 상당히 모호해 진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노동이 양적개념에서 질적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일일 노동시간제의 의미가 없으며 일과 즐거움이 동일시 된다. 이 시대의 노동은 게임과 다를 바 없으며 노동의 원인은 그것이 바로 쾌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일이 고통인 경우는 아마도 직무설계가 잘못된 경우라고 보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무인공장에 의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며 자본은 노동과의 결합을 피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자본을 재생산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는 세계자본이 산업주의시대의 노동세력의 견제와 부담을 벗어 버리고 새

9)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80.

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산업주의 시대에 배분을 둘러싸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념논쟁의 기반이 되어왔던 노동가치설이 붕괴되어 버리고 생산이 자본과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스스로 자본을 재생산”하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장비율을 고도화하고 생산 및 사무자동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결국 무인공장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중간적 과정에서 노동자는 소수의 고임금 고급인력으로 기업에 남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선진국의 첨단 대기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수의 고임금 고급인력의 근로자들은 자본가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근접하여 내부의 노사분규가 점차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오히려 고용을 둘러싼 유직자와 무직자 사이의 기업외부의 사회갈등이 크게 연철될 가능성이 많다.

기업내에서는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노사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구조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바탕이 이루어진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에 관심이 많고 부단히 경쟁적인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된다. 비고용상태의 사회구성원들은 생산시설을 소유할 기회 및 즐거운 노동을 할 기회를 갖춘 소수의 소유자 및 근로자에게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양보한 댓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가치설에 의한 배분의 요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그러한 소유와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대중을 먹여 살릴 책임을 지는 기회평등설에 입각한 배분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 새로운 시대는 갑자기 생산성이 증가됨으로 노동자들이 단순노동으로 부터 해방되며 다양성과 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자신의 몫을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주장할 수도 없으며 정보배분의 불평등구조는 오히려 사회를 극단적인 새로운 계급갈등으로 더욱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과 협조,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 경로 정보배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후기산업사회의 사회조직 및 기업조직은 산업주의사회의 기반과 가정이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국가나 기업이 큰 혼란(Chaos)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로베이스의 관점에서 새롭게 사회 및 기업조직의 정보자원, 인적자원, 물질자원,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하여 재구성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화와 조직혁신을 결합하여 접근하려는 “제로베이스 패러다임(Zero Base Paradigm)”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¹⁰⁾

9. 요 약

원시사회에서는 노동을 시키는 자와 노동을 하는 자 사이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대사회에서는 노동이 주로 전쟁포로나 범죄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죄와 벌로서 인식하는 부정적 노동관을 가졌었다. 다음 중세시대에는 부역노동으로서 당시의 조직 및 신분상 당연한 자기분담으로 인식하였으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시대는 노동을 소명의식으로 미화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노동관은 노동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근로계약이 맺어져 노동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음으로서 거래적 관점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10) 남중원 지음, 「제로베이스이론(부제, 조직진단 및 설계)」, 石井, 1994.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관은 이타적인 동지에 의한 공동체 의식이 동기가 되지만 타율적 이타주의는 새로운 착취형태로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가치설이 종언되고 노동이 게임과 같이 즐거움이나 쾌락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앞의 논의들을 아래 <표 1>로서 요약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상의 다양한 여러 노동관을 살펴 본 것은 앞으로 다양한 노사관계를 인식하는 연구에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노동문제에 관하여 경직된 단일의 인식의 틀을 해방시켜 다양한 대안적 사고와 절충적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 각 시대별 노동관의 특징

노동관	시대적 특징	노동의 형태	노동의식
1 원시사회의 비통제적 노동관	수렵채취시대 종족번식의 우선문제. 동질적 공동체	자기자신과 동일시 되는 자기집단을 위한 노동. 자급자족적 노동 노동사용자와 노동제공자 사이의 미분리 노동통제나 착 취개념 없음	자기 자신의 노동수요를 위한 자유노동
2 고대사회의 노동부정적 노동관 (노예노동)	신석기 시대 정착생활의 농경시대 원시 공동체 사회의 붕괴 생산성의 향상, 잉여물 발생 가족, 국가의 형성 사유재산제, 빈부격차. 불평등 계급사회의 출현	노동사용자와 노동제공자 사이의 분리현상 노예노동 착취노동(죄인, 전쟁포로) 노동의 해방이 목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 노동은 죄와 벌의 댓가
3 중세봉건사회의 조직인적 노동관 (부역노동)	봉노제도. 稅에 의한 간접노동방식	조직의 유기체설에 입각한 신 분적 역할분담의 노동 자급자 족노동과 부역노동의 결합	肢體사상에 의한 당연한 신분적 노동의식
4 프로테스탄티 즘 노동관 (초기자본주의 노동관)	산업혁명, 종교혁명의 이념지배하의 노 동 계약의 시대 자본과 노동계층의 상호이동이 많았던 시대	프로테스탄티즘 종교의식의 노 동동기 소명의식, 천직사상, 신에 대한 도구사상, 노동결과에 대한 초기자본 축 적의 정당성 부여, 구원확신 증거	소명의식으로 노동에 대한 美化.
5 임금노동노동관 (자본주의 노동 관)	독점자본주의 경향, 대규모 자본축적의 시대 소극적인 노동가치설 입각 시장 메카니즘 증시 노동의 상품화 과정 착취에 의한 자 본축적 비판제기	노동의 상품화로 노사간 노동매매 物化된 인간관계	임금을 받는 댓가로서 노동의 가치창출 기여
6 사회주의 노동관	적극적인 노동가치설 입각 공유제도 전부적 저항조직의 사회 잉여물의 평준화	유토피아 사회건설 이념 자기현신의 논리 노동의 진투적 성격. 타율적인 이타주의에 의한 새 로운 노동착취 형태.	이타적인 동지에에 의 한 공동체 의식
7 후기산업 사회의노동관	노동가치설의 붕괴 자본장비율의 고도화 자동화, 무인공장의 지향 조직혁신과 정보기술의 결합 제로베이스 페러다임의 등장 기회평등설에 의한 배분.	노동의 놀이 게임 성격 소수의 고임금 고급인력 인력개발의 증시. 새로운 조직 및 직무설계 협력적 노사관계 여건	노동은 즐거운 놀이나 쾌락